

타임지 선정 '2004 가장 멋진 발명품'

끈 없는 물안경, 거울 TV, 젖지 않는 물, 문자 상들리에, 무인전차... 올 한 해도 기발한 아이디어는 넘쳐났다. 타임지는 지난 11월 29일호에서 생활, 레저, 산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004 가장 멋진 발명품'을 선정해 소개했다.

전천후 차량

세그웨이사가 개발한 특수 4륜 차량 '켄타우루스'는 인체의 균형감각을 응용한 '동체 안정화'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바윗길·초원·모래밭 등 어디든 달릴 수 있다.

거울 TV



벽걸이형 TV가 꺼졌을 때 검은 벽면이 되어 버리는 단점에 주목, TV를 안 볼 때는 편광 코팅 처리된 LCD 화면이 빛을 반사해 거울이 된다.

문자 전달 상들리에



2천1백개의 크리스털과 1천50개의 흰색 발광소자를 이용해 만든 1.5m짜리 상들리에가 전화를 통해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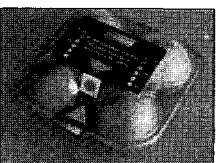
방화액

3M사가 개발한 이 액체(불소첨가 케톤)는 물과 비슷하지만 물건에 묻어도 젖지 않는다. 노트북을 담갔다가 꺼내도 아무 문제 없다. 사무실·컴퓨터실·박물관 같은 곳에서 불을 끌 때 유용하다.

무인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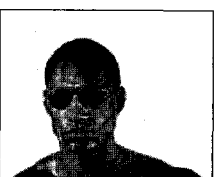
미 육군이 개발한 무인 전차차량. 카메라 4대와 7.62mm 기관총을 달았고, 야간 투시가 가능하다. 계단도 오를 수 있고 사격시 외에는 소음도 거의 없다. 실시간 전송 화면을 통해 1.6km 밖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하다. 이라크에 18대가 투입될 예정.

과일 숙성도 측정기



키위, 멜론, 망고 같은 과일에서 발산되는 향을 분석, 익은 정도를 판별해내는 센서를 포장박스에 붙여 골라 먹게 했다.

끈 없는 물안경



의료용 접착제를 이용, 끈을 없앴다. 다이빙 해도 끄떡없을 정도. 시야도 확대됐고 물에 대한 저항률도 '0'이라서 맨눈으로 헤엄칠 때보다 빠르다.

'2004 특허청 및 발명진흥유관단체 워크숍' 개최

특허청은 발명진흥유관단체간의 협력을 위하여 '2004 특허청 및 발명진흥유관단체 워크숍'을 지난 11월 19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와 특허청 혁신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박호형 특허청 혁신팀장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시작되었다.

최중협 특허청 발명정책과장은 '발명진흥사업의 전환점에서'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발명 유관단체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중심적 위치에서 있음'을 강조하고 '수요자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정비와 새로운 상품의 개발 및



'발명진흥사업의 전환점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최중협 특허청 발명정책과장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서비스를 재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사업별 성과분석이 있던 후, 이형국 한림대 석좌교수의 '직장인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이라는 강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주요사업별 성과분석에서 여성발명활동 촉진을 위해 진행된 이번 한 해 동안의 사업보고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도 논의되었는데, 지난 2001년부터 여성발명진흥정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지식재산권 출원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여성발명 장려 정책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사업은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도 단위에 '여성발명교실'을 신설하여 여성발명가를 양성하는 등 여성발명 활동의 저변을 확대할 것임이 논의되었다.

전국 청소년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 시상식

'제28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 및 만화 현상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1월 15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경북 형일초등학교 4학년 황대영(글짓기 부문·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과 포항시 포항제철중학교 5학년 이하늘(만화 부문·과학기술부장관상)

학생이 영예의 초등부 대상에 각각 올랐다.

한국발명진흥회가 '나의 발명과 내가 발명하고 싶은 것'이란 주제로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글짓기·만화 두 부문에 걸쳐 모두 1백76명이 수상했고 어린 꿈나무들이 자신의 발명 이야기를 펼쳐보이도록 함으로써 좀 더 새롭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못말리는 짝퉁 때문에 원조들 울상

국내 식음료업체들이 자사(自社)가 보유한 시장 1위 제품의 브랜드 관리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수 불황을 타개하려고 1위 브랜드의 이름과 패키지 디자인을 모방한 '미투(me too)' 제품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추장 시장 1위인 해찬들은 자사의 '태양초 고추장'의 패키지 디자인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자사 제품이 '원조' 태양초 고추장임을 강조하는 광고도 내보내고 있다. 최근 경쟁업체들이 '태양초 고추장'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태양초는 '햇볕에 말린 고추'를 일컫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태양초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해찬들로서는 12년간 태양초라는 브랜드 파워를 공들여 키워왔는데, 이를 경쟁업체들에게 손쉽게 침범당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일리톨검 시장 1위인 롯데제과는 지난 8월 검 이름을 아예 '자일리톨검 휘바'로 바꿨다. 자일리톨검이 일반 명사로 쓰이고 있어 타사(他社) 제품과 차별화시키기 쉽지는 않다는 판단에서다. 회사측은 '자일리톨+2검'에 '휘바' 로고를 붙이고 새로운 캐릭터를 제작했다.

최근 광고에서는 배우 김혜자 씨가 등장

해 '저는 그냥 롯데인줄만 알았어요. 어쩔 그렇게들 비슷해요?'라는 멘트를 통해 경쟁사의 자일리톨검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용기 디자인도 핵심적인 관리사항이다. 롯데칠성은 지난 4일 '한국코카콜라의 '킨사이다' 캔 디자인이 우리가 만드는 '칠성사이다'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한국코카콜라를 상대로 캔 용기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롯데칠성은 신청서에서 '디자인 특징이 전체적으로 비슷해 관련회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칠성사이다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 의도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측은 '킨사이다는 지난 76년부터 초록색과 흰색을 주요색으로 포장 용기를 만들었고, 상표·글자체·도안 등이 칠성사이다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즉석밥시장 1위 브랜드인 '햇반'을 생산하는 CJ는 즉석밥이 '햇반'으로 통용되고 있어 굶머리를 앓고 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타사 브랜드의 즉석밥 제품에 '○햇반'이라고 이름표를 붙여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판매업체측에서는 '소비자들이 즉석밥을 달라고 할 때 그냥 '햇반 주세요'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알아두세요!

운전 중 스트레칭 요령

운전 중 간단한 스트레칭은 신체의 피로를 풀어주고 올바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몇가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운전 중의 피로를 씻어내자!

목관절 스트레칭

온몸의 긴장을 풀고, 앉은 자세에서 목을 좌우로 각각 3회씩 천천히 회전시킨다. 목을 돌린다는 생각보다는 머리의 무게를 몸이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크게 회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목뒤 근육 스트레칭

오른손 바닥으로 머리 왼쪽 뒤통수를 감싸 쥐고, 오른쪽으로 45도 앞쪽 방향으로 지긋이 당겨서 5초 이상 있다가 다시 원위치 시킨다. 다음은 반대로 왼쪽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 뒤통수를 감싸 쥐고, 왼쪽으로 45도 앞쪽 방향으로 지긋이 당겨서 5초 이상 유지한다. 목뒤 근육과 목덜미 근육이 당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깨근육 스트레칭

오른팔을 편안히 늘어뜨린 상태로 팔꿈치를 가볍게 90도로 굽히고 힘을 뺀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감싸 쥐고, 천천히 힘껏 왼편으로 지긋이 당겨서 5초 정도 유지한다. 이때 어깨 뒤 근육과 팔의 바깥 근육이 당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왼팔에 대해서도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한다.

팔근육 스트레칭

양손의 손목을 꺾어서 팔꿈치는 편 상태로 손등을 허벅지 위에 대고, 손가락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다. 팔에 체중을 서서히 가하며, 손목이 천천히 더 꺾이게 한다. 팔꿈치 근육이 당겨지는 것을 느끼면서 5초간 유지한다.